

## 난폭한 아버지로 집에 불화가 있습니다 ❧

Q) 난폭한 아버지로 불화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담배를 거의 숨쉬듯이 들이마시고, 매일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시면 괜히 트집을 잡아 어머니를 때립니다. 어머니는 한이 맺히셔서 정신병이 들 지경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아버지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경북에서 주희

A)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해답 얻기를 소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겪는 중에 실족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마음속에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리라 믿습니다(애 3:33).

자매가 궁금해하는 것은 첫째, 아버지가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아버지께 대한 심리를 이해하십시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이웃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있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항상 비판적이고 불평을 합니다. 한편으로 무엇인가 남보다 잘하는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늘 좌절 경험뿐이었기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을 상처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도 누군가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면 금세 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싫어서 현실에서도 피하고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괴로움과 열등감을 망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격이 황폐화됩니다. 자기보다 지위나 권력있는 사람 앞에 가면 못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움추리고 굴종적인 성격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하기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매우 사나운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술을 끊기 전에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처받은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인격의 황폐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여기에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가족들도 이제는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온갖 방법을 시도했어도 아버지에게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그런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보십시오. 아버지께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 서두르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아버지의 상처받은 마음의 핵심은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이미 굳어진 성격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한으로 울퉁병이 생긴 어머니, 아버지로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매의 마음에도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적 상처로 왜곡된 아버지의 성격을 치유해달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매의 가정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잘 견디십시오. 잘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하다보면 집안의 문제를 풀리지 못하게 했던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데 이를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잘 이루어지면 소망은 그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매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매일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계속하십시오.

글/차준구(송탄신경정신과 원장)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제공

<http://isena.com/>